

#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육명신<sup>1</sup>, 박명신<sup>1\*</sup>, 박용한<sup>1</sup>  
<sup>1</sup>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Effects of Media Literacy and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For Youth

Myeong-Sin Yuk<sup>1</sup>, Myeung-Sin Park<sup>1\*</sup>, Yong-han Park<sup>1</sup>

<sup>1</sup>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D지역의 청소년 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디어리터러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은 미디어리터러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 시대에 학교생활 및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과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삶에 필요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rofessor of media literacy and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tween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th, Media literacy ha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ng people,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ng people. In addition,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y was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path to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ng people. Therefore, media liter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ng people,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as found that the effect is mediated between media liter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f young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s a lot of hard work and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for improving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youth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and education on media literacy era, which we hope in the future the youth of life necessary for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uggest to improve as a practical implication offer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school education.

**Keywords** :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youth,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 1.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속한 확산은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교육으로 대표

되는 지식의 생산 및 분배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지식이 구술로 저장하는 형태에서 인쇄매체로, 또 미디어와 디지털매체로 변화되어 인지능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Corresponding Author : Myeung-Sin Park(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el: +82-10-5437-0335 email: parkms0335@cnu.ac.kr

Received July 1,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Revised (1st July 27, 2015, 2nd August 6,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하였다.

예전에는 책을 읽어서 정보를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는 다감각매체인 하이퍼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링크로 연결시킬 수 있어 정보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시적이며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전자언어를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그 중 디지털텍스트의 리터러시는 스크린 상에서 선택적이고 비선형적으로 글자뿐만 아니라 소리, 영상 등이 포함되는 멀티미디어적 텍스트로 읽고 쓰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는 편집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며, 교환되고 있다[1]. 이렇듯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통신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육내용, 지식전달 방법 등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은 새로운 리터러시로 미디어리터러시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에서 중요한 자기표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자기표현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할 때, 당당하면서 동시에 성취감을 얻게 되며, 상대방 역시 자신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2]. 따라서 자기표현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말하기 및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적극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서조절전략은 자신의 감정 상태 인식은 물론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 의도 등을 이해 및 공감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행동할 것이라 예측한다[3].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습과정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4],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습과 학교생활에 필수요건이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및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갖추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즉,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한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 미디어리터러시 [5,6] 자기표현[7-11], 정서조절전략[12-15], 자기조절학습능력[6, 16-18]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선행연구들은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자기학습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개변인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 시대에 학교생활 및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의 삶에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의 향상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 제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미디어리터러시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자기표현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 2.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최근 [22]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리터러시 및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총 117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5]는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행위,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행위 및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6]은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자기조절학습능력 협력지향성이 초등학교

인지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중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규범준수, 참여성, 기술적 활용, 자아표현, 관용성, 공공성의 순서대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은 자기표현훈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과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훈련의 회기수 조절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8]은 자기표현훈련이 고등학생의 자기표현과 불안에 미치는 성과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자기 표현능력 프로그램 실행을 자기표현 향상과 불안감소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9]는 웹 기반 미디어에서 사이버상의 이용동기가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10]은 자기표현훈련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변화로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11]은 자기표현훈련이 중학생의 자기표현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자기 표현력 증가와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12]는 적응 유연한 청소년은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전략이 주는 효과성이 크게 작용하며, [13]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적응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정서조절전략이 확인되었고, [14]는 일상적 창의성과 리더십 및 정서조절전략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밝혔다. [15]는 정서가 적응에 주는 영향 등 많은 연구로 청소년의 정서조절전략으로 인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밝혔다.

[6]은 스마트환경에서 학습자의 미디어리터러시, 협력지향성이 초등학생의 인지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으로 밝혔으며, [16]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적 자기조절학습 전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길러줘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17]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일상스트레스에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으며, [18]은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에서 인지양식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변화 분석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구성하는 요인과 구체적인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

소년의 자기학습조절능력(초인지 전략, 동기전략, 행동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D지역의 청소년 45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4명(29.6%), 2학년이 162명(35.8%), 3학년이 157명(34.4%)으로 분석되었다.

#### 3.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및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Table 1과 같이 검증하였다.

이들 변인은 4개의 잠재변인 즉, 미디어리터러시 40문항과 자기표현 30문항, 정서조절전략 51문항,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40문항을 측정할 수 있는 각 범위의 문항을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측정항목의 내용타당도를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디어리터러시 대한 척도는 [5]가 사용한 것으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산출한 계수가 .918로 확인되었다. 자기표현 측정을 위해 [7]이 사용한 것으로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967로 확인되었다. 정서조절전략을 위해 [19]이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900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  $\alpha$ ) 계수는 .956으로 산출되어 척도의 신뢰성이 안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Variable	Sub-factors	Munhangsu	Concept confidence	Entire confidence
Media Literacy	Critical understanding	7	.857	.918
	Technological advantage	8	.906	
	Self-representation	4	.836	
	Compliance	9	.844	
	Forgiveness	3	.809	
	Participation	6	.897	
Self-expression	Publicity	3	.857	.967
	Language arts	15	.923	
	Speech area	8	.903	
	Nonverbal area	7	.931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roactive thinking	8	.808	.900
	Passive think	6	.713	
	Cognitive accepted	3	.898	
	Adaptively Getting Advice & Help	4	.877	
	Meet friendly people	3	.688	
	Maladjustment Diversion Activities	4	.845	
	Negative thoughts	8	.791	
	Others blame	4	.899	
	Voracity	3	.879	
	Activities available poisoning	4	.887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lf-assessment	2	.787	.956
	Organization & transformation	10	.892	
	Meta cognitive Strategy Goal Setting & Planning	2	.698	
	Record keeping & inspection	1	.956	
	Demonstration & storage	3	.688	
	Record Review	2	.835	
	Motivation Strategy Challenge sense	3	.887	
	Curiosity	3	.853	
	Controls	3	.902	
	Action Strategy Information Search	4	.984	
Action Strategy	Structured environment	2	.859	.977
	Self-reinforcing	6	.884	
	Social assistance required	8	.977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Table 2. Effects of media literacy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Constant)	1.808	.143		12.628		
Critical understanding	.309	.050	.358	6.131***	.511	.511
Technological advantage	.012	.050	.018	.246	.330	.330
Self-representation	-.060	.040	-.101	-1.509	.393	.393
Compliance	.162	.028	.280	5.882***	.767	.767
Forgiveness	-.049	.035	-.074	-1.386	.612	.612
Participation	.041	.042	.067	.970	.368	.368
Publicity	.008	.037	.013	.206	.432	.432
F=18.300*** R=.473 R <sup>2</sup> =.224						

\*\*\*p<.001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비판적이해( $t=6.131, p<.001$ ), 규범준수( $t=5.882, p<.001$ )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비판적이해( $\beta=.358$ ), 규범준수( $\beta=.280$ ), 참여성( $\beta=.06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화량의 22.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자기표현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현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언어영역( $t=4.407, p<.001$ )과 비언어영역( $t=9.907, p<.001$ )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비언어영역( $\beta=.355$ ), 언어영역( $\beta=.33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화량의 34.7%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Effects of Self-expression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 $\beta$ )	<i>t</i>	Multicollinearity	
	<i>B</i>	<i>S.E</i>			Tolerance	VIF
(Constant)	1.150	.132		8.689		
Language arts	.254	.058	.331	4.407***	.258	.258
Speech area	.051	.050	.078	1.034	.256	.256
Nonverbal area	.383	.042	.355	9.071***	.950	.950
F=79.422***		R=.589	R <sup>2</sup> =.347			

\*\*\**p*<.001

### 4.3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현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정적생각하기( $t=8.633, p<.001$ ), 타인 비난하기( $t=2.752, p<.01$ )가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부정적생각하기( $\beta=.415$ ), 타인비난하기( $\beta=.126$ ), 폭식하기( $\beta=.087$ ), 능동적생각하기( $\beta=.05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화량의 33.2%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 $\beta$ )	<i>t</i>	Multicollinearity	
	<i>B</i>	<i>S.E</i>			Tolerance	VIF
(Constant)	1.145	.175		6.553		
Proactive thinking	.049	.104	.051	.472	.131	7.627
Passive think	-.033	.072	-.038	-.463	.224	4.454
Cognitive accepted	.042	.067	.051	.633	.231	4.323
Getting Advice & Help	.007	.069	.010	.106	.188	5.332
Meet friendly people	-.001	.065	-.002	-.017	.155	6.432
Diversion Activities	.038	.072	.050	.527	.168	5.937
Negative thoughts	.351	.041	.415	8.633***	.655	1.526
Others blame	.095	.034	.126	2.752**	.720	1.389
Voracity	.055	.029	.087	1.883	.705	1.419
Activities available poisoning	.031	.030	.046	1.040	.759	1.318
F=19.884***		R=.576	R <sup>2</sup> =.332			

\*\**p*<.01

### 4.4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를 분

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4.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모든 관측변수들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Correlations of variables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edia Literacy	1			
Self-expression	.155**	1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433**	.414**	1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319**	.552**	.459**	1
M	3.219	2.729	3.001	3.062
SD	0.548	0.540	0.383	0.528

\*\**p*<.01

#### 4.4.2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 분석

미디어리터러시는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미디어리터러시( $t=7.157, p<.001$ )가 평균보다 1표준 편차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평균보다 .319만큼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 총 변량의 10.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Effects of media literacy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 $\beta$ )	<i>t</i>
	<i>B</i>	<i>S.E</i>		
(Constant)	2.071	.140		14.741***
media literacy	.308	.043	.319	7.157***
F=51.216***		R=.319	R <sup>2</sup> =.102	

\*\*\**p*<.001

Table 7의 결과와 같이 자기표현( $t=14.073, p<.001$ )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평균보다 .552만큼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표현이 총 변량의 30.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Effects of Self-expression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	<i>t</i>
	<i>B</i>	<i>S.E</i>		
(Constant)	1.589	.107		14.885***
Self-expression	.540	.038	.552	14.073***
F=198.051*** R=.552 R <sup>2</sup> =.305				

\*\*\* $p<.001$

Table 8의 결과와 같이 정서조절전략( $t=10.980, p<.001$ )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평균보다 .459만큼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전략 총 변량의 21.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	<i>t</i>
	<i>B</i>	<i>S.E</i>		
(Constant)	1.161	.175		6.649***
Emotion regulation	.634	.058	.459	10.980***
F=120.561*** R=.459 R <sup>2</sup> =.211				

\*\*\* $p<.001$

Table 9의 결과와 같이 미디어리터러시( $t=3.332, p<.001$ )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자기표현은 평균보다 .155만큼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 총 변량의 20.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Effects of Media Literacy on Self-expression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	<i>t</i>
	<i>B</i>	<i>S.E</i>		
(Constant)	2.237	.150		14.928***
Media Literacy	.153	.046	.155	3.332***
F=11.103*** R=.155 R <sup>2</sup> =.204				

\*\*\* $p<.001$

Table 10의 결과와 같이 미디어리터러시( $t=10.214, p<.001$ )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정서조절전략은 평균보다 .433만큼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 총 변량의 18.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Effects of Media Literacy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	<i>t</i>
	<i>B</i>	<i>S.E</i>		
(Constant)	2.026	.097		20.918***
Media Literacy	.303	.030	.433	10.214***
F=104.333*** R=.433 R <sup>2</sup> =.188				

\*\*\* $p<.001$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아래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차와 VIF 모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디어리터러시( $t=3.944, p<.001$ ), 자기표현( $t=10.917, p<.001$ ), 정서조절전략( $t=4.655, p<.001$ )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표준화계수는 자기표현( $\beta=.442$ ), 정서조절전략( $\beta=.207$ ), 미디어리터러시( $\beta=.16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기표현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평균보다 .442만큼 높아지며, 정서조절전략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만큼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207만큼 높아진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미디어리터러시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아지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평균보다 161만큼

**Table 11.** Effects of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	<i>t</i>	Multicollinearity	
	<i>B</i>	<i>S.E</i>			tolerance	VIF
(Constant)	0.527	0.168		3.144		
Media Literacy	0.156	0.039	0.161	3.944***	0.811	1.232
Self-expression	0.432	0.04	0.442	10.917***	0.828	1.207
Emotion regulation	0.285	0.061	0.207	4.655***	0.689	1.451
F=95.897*** R=.625 R <sup>2</sup> =.391						

\*\*\* $p<.001$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총 변량의 39.1%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라 각 변인들의 경로를 나타낸 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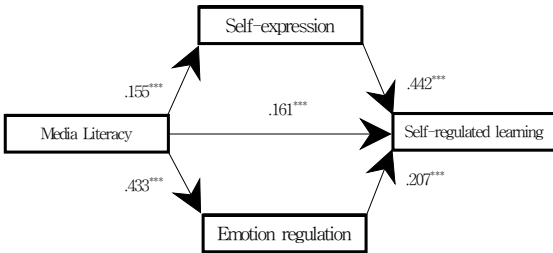


Fig. 1.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for Youth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이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은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4.4.3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 효과

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아래 Table 12와 같다.

Table 12. Effects of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 path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Predictors	Problem Solving Abilities			Indirect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edia Literacy	.161	.155x.442=.069 .433x.207=.090	.320	Self-expression-> Self-expression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elf-expression	.155	-	.155	
Emotion regulation	.433	-	.433	

Table 12에서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총 효과는 정서조절전략(.433), 미디어리터러시(.320), 자기표현(.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가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청소년

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디어리터러시의 직접효과(.161), 간접효과(.159)로 총효과는 .320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을 통한 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시사해 줌을 확인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D지역의 청소년 453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습향상과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4개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 되어 다양한 미디어의 중재가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21]되고 있음을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자기표현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표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되어 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말하기 및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자기표현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7]로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위해서 인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행동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정서조절전략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조절전략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조절함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행동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측한다[3]는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미디어리터러시는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표현, 정서조절전략, 미디어리터러시 순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디어리터러시는 자기표현과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의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5-18]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디어리터러시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구성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전반에 걸친 흥미와 학습성취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2015. 7. 23.)에 의해 2018년부터 정부의 SW교육 의무화 시행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교육과정 변화와 교사의 직무연수, 심화연수로 SW교육 실력 배양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은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둘째, 현대사회는 자기표현능력의 정도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행동변화를 얻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0]. 이는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지므로 심화된 자기표현능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생활지도가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셋째, 학교생활에서의 정서조절은 전략이 필요함을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14],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체험의 기회를 통한 정서조절 훈련이 요구된다. 정서조절과 관련된 학교생활에서의 교육관계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련이 된다면, 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주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의 학습성취와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기에 중요 요인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 시대에 학교생활 및 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기표현 및 정서조절전략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의 삶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 제공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연구의 결과 D시만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영역에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 S. Choi, "Rethinking Storytelling in the Digitalage", *The Society of Korean Oral Literature*, 16, 27-48, 2003.
- [2] S. H. Lee,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Training Program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Hannam University, 2008.
- [3] Eisenberg, N., & Fabes, R. A.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 Sage, 1992.
- [4] Zimmerman, B. J., & M.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2.1.51>
- [5] J. L. An, Y. K. Sae, S. M. Kim "The relationships among media literacy constructs,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self-awareness of media use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3(2), 161-192, 2013.
- [6] J. E. Yoo. "The Influence of Learner's Media Literacy, Self-regulated Learning Skill, and Collaborative Preference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in SMART education Environment." Major in Educational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2014.
- [7] B. G. JOE. "Effects of Training on self-expression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2010.
- [8] H. S. Lee. "Effects of Training on self-expression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2002.
- [9] Y. J. Kim. "Web Self-Disclosur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6), 78-99, 2008.
- [10] S. H. Song. "The Effect of the Self-Expression Training



on the Peer Relation & Self-Esteem.” Dankook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1994.

- [11] I. R. Hwang.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ASSERTIVE TRAINING ON THE ASSERTIVE BEHAVIOR AND ANXIETY OF THE SECOND GRAND PUPILS IN THE BOYS’ MIDDLE SCHOOL.” *Journal of Ewha Education* 2, 172-182, 1991.
- [12] M. A. Kim. “A Study On The Emotional Clarity and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f Resilient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5-32, 2008.
- [13] E. K. Bae. “(The)relationship among everyday creativit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2011.
- [14] M. S. Park, S. H. Han, Y. M. Kim. “A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Everyday Creativity, Leadership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6(1), 197-225, 2014.
- [15] Lazarus, A. A. “Assertive behavior: A brief note.” *Behavior Therapy*, 4, 697-699, 1991.  
DOI: [http://dx.doi.org/10.1016/S0005-7894\(73\)80161-3](http://dx.doi.org/10.1016/S0005-7894(73)80161-3)
- [16] H. Y. Jang.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adaptiv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mprove the program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6th Grade targets,”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6.
- [17] Y. S. Yun. “A Study on Self-Regulatory Ability of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arenting, Behavior Problems, and Life Stress,” Major in Child Psychology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Graduated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18] D. H. Yun. “An Analysis of Changes i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the Cognitive Style in Problem-Based Learning via WEB,” Major in Educational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3.
- [19] J. Y. Lee. “The Realionship Between Affect Intensity and Emition Regulation Strategi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217-1226, 2008.
- [20]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23, 614-628, 1989.  
DOI: <http://dx.doi.org/10.3102/00028312023004614>
- [21] Gardener, W. L. “Can computers turn teaching inside-out, transform education, and redefine literacy? In R. Kubey(ed.)” *Medie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359-376, 1998.
- [22] K. T. Kim. Trend Analysis of Media Education Research in Korea,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U, 29, 170-204. 2010.

**육 명 신(Myung-Sin Yuk)**

[정회원]



- 2001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상담, 미디어, 창의성

**박 명 신(Myung-Sin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중부대학교 초빙교수&체육교육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평생교육, HRD, 창의성, 리더십

**박 용 한(Yong-han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2008년 12월 : 미시건주립대 대학원(철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방법, 리더러시, 동기